

불자 세상보기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1994학년도부터 도입된 대학시험능력시험이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출제의 오류가 제기되었고, 복수 정답의 등장으로 인해 수험생의 표준점수와 등급이 달라지면서 입시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수능의 개혁과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큰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당은 세미나를 열고 당정협의회를 만들겠다는 등 부산을 열고, 야당은 수능의 오류를 정권의 무능으로 질타하면서 개혁을 위한 팀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필자의 답답함은 어떤 대상에 대한 답답함이 아니라 자신의 무력감에서 나온 답답함이다. 이러한 답답함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육자들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

육은 교육보다 평가를 중요시한다. 교육 평가는 좀 더 나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교육은 교육보다 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인가? 바로 한국 사회가 학벌사회로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학교는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 근대화를 이끌어 온 큰 버팀목의 역할을 해 왔다고 자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학교가 흔들리고 교실이 붕괴되었다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가 학벌사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학벌이 한국사회의 강력한 신분으로 등장하였고, 학벌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막대한 사교육비가 들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임무를 상실하고 입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만 것이다.

학벌사회라는 구조적 틀 속에서 수능을 과연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1994년 수능의 등장은 과도한 대학입시 경쟁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고, 이명박 정권에서 나온 EBS 연계 출제도 사교육

비를 줄이겠다는 착한 의도에서 나왔지만 동시에 많은 폐단도 나오고 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인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 오지선다형으로 변별력 있는 객관식 문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필자는 여러 경험에서 체감해 왔다. 나의 전공과 관련된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에서 정답을 찾지 못한 경험도 있다.

미국의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 SAT는 시험문제와 답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오류의 논쟁을 아예 차단하는 차가움을 보이고 있다. SAT를 주관하는 기관은 국가가 아닌 사기업체이고, 대학과 밀접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시험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매우 높다. 미국의 제도 운운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미국 교육 흉내 내다가 한국 교육 망했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던가.

지금의 우리의 수능 시스템은 매우 폐쇄적이다. 수능출제(검토)위원회 한 달 여간 외부의 차단된 장소에서 출제하고 검토한다. 그리고 출제(검토)위원회 대개 서로 익숙하고 아는 사이가 많다.

여기도 학벌사회적 요소가 가미된다고 볼 수 있다. 비밀과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은밀하게 위원을 선출하고 폐쇄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 내에 출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능의 오류는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큰 방향은 열린 수능의 출제 방향이다. 열린 자세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차선책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에 혁명은 없다. 혁명의 흉내를 낼 때 더욱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과거의 경험에서 많이 배웠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학벌사회가 개인의 삶과 교육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 체감하기 시작했다. 지식정보사회에는 학벌이 사라질 것이다.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되찾고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 때 우리의 미래가 바로 선다. 수능의 오류를 보면서 우리 교육의 오류를 성찰해 보자.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벌사회와 수능의 표류

社說

이어지는 훼손 대책은 없나

훼손의 악몽이 이번에는 국보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법보장할 해인사에서 재현됐다고 한다. 11월 20일 40대 여인이 해인사 대적광전, 비로전 뒷벽과 독성각, 명부전 등에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특정종교의 주문을 검정색 사인펜으로 낙서했고, 사실을 인지한 사중은 경찰에 신고했다. 결국 수사의뢰 2일 만에 검거된 여인은 이 같은 내용의 헌문을 벽에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낙서를 했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대형 훼손 사건과 굵직한 종교편향 사건들이 유난히 많았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지만 큰 갈등이 없어왔지만, 최근에는 내재적 갈등 양상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그만큼 근원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불교계 안팎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대법원이 내년부터 불상 훼손 등

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을 추진키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1월 21일 제60차 전체회의를 열어 손괴죄 범위를 △재물손괴 △공익건조물 파괴 △지정문화재 손상 △국가지정문화재손상 등으로 세분화하고 상습과 누범, 특수 손괴 등으로 처벌 수위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이유로 이웃종교 시설 등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돼 가중 처벌받게 된다. 다시 말해 훼손을 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자신의 종교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와 관용도 수반돼야 하는 것은 사회적 상식이다. 특히 한국 문화재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종교적 이유의 테러는 불교뿐만 아니라 국민적 손실이기도 하다. 양형 기준 상향과 더불어 처벌금지법, 중요방지법 등이 제정돼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제까지 '대중공사' 만 할 것인가

조계종이 오는 12월 23일 회향하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에 이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2030 조계종, 100인 대중공사'를 진행한다. 총무원은 이 같은 계획을 11월 25일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총무원은 생명평화 1000일 정진 회향과 함께 '100인 대중공사' 발족하고, 내년 10개의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2030년 미래 한국불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사부대중이 논의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효성에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다.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생명평화 1000일 정진의 '출구 전략'으로 '100인 대중공사'를 내놓았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종단 안팎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부대중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미 생명평화 1000일 정진과 함께 진행된 수차례의 아담법석에서도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또한 '100인 대중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10개의 주제도 "2011년 승가교육진흥위원회가 주최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토론회'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추진위원장도 추진위원들도 대부분 총무원 인사이거나 불교광장 소속 스님들이다. "사부대중의 공의를 모으겠다"고 대중공사를 열면서 추진 인사부터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 이 같은 형식의 대중공사가 얼마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낼 지는 미지수다. 되려 '그 나물의 그 밥'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원장 현우 스님은 "조계종은 이대로 가면 5년 안에 해체된다"고 했고, 불교사회 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이미 절반만 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중들은 산재한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종단은 '도둑이 훔쳐' 토론보다는 이제는 변화와 쇄신의 결과물을 내놓을 때이다. 정말로 대중공사가 필요하다면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발언대

해인사 훼손 사건

배타적 믿음이 증오범죄의 원인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처장

최근 타종교 시설에 대한 종교적 증오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사회적 위상이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개인의 종교적 신앙심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특별한 법적 제한없이 개인의 종교적 신앙심의 표현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나의 자유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것이, 나의 자유와 타인의 자유가 조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 삶의 대전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 건 아닌데 하고 할 만한 종교적 증오발언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종교적 신앙심의 표현행위와 이로 인한

불편이나 권리 침해는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일들은 근절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고 그 정도가 도를 넘고 있을까?

종교적 증오범죄가 양산되는 배경에는 첫째, 각 종교교단의 교리에 대한 배타적 믿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믿는 종교의 가르침이 최고라는 법이, 서로가 최고라고 다투는 것은 필사적이다. 둘째, 각 종교교단이 종교적 증오범죄를 용인하는 듯한 그릇된 신행 문화를 만들고 소속감을 확인하는 계기로 종교적 증오범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셋째, 각 종교교단의 그릇된 신행문화를 견뎌내며 동화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곳에 기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이다.

최근 불교계에 잇따르고 있는 훼손 사건이나 각종 종교 증오범죄를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의 길은 멀어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도덕적으로 종교적 증오범죄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지금부터라도 가능하다.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법의 지배를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서울 '템플스테이 WEEK' 성황

1700년 불교사, 템플스테이의 동력



김상기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차장

한국인의 연평균 노동 시간은 2090시간. OECD 주요국 가운데 행복지수는 늘상 하위를 뚫는다. 정서적 가치의 평가 절하가 당연시되는 사회다.

박노해 시인의 글을 보던 중, '숨 가쁜 일상에서 잠시 기대앉아 깊은 숨을 고르는 환한 자리 하나' 없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했다. 참 딱한 일이다. 이 계절의 주위를 다독일 휴양처 하나 없는 도심의 막막함이.

다행인 것은 2014 서울 템플스테이 위크(WEEK)가 7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서울시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 9곳이 모두 참여,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을 방문한 2,500여명의 내·외국인이 도심 속 산사여행에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하루 만에 예약이 모두 마감됐을 정도로 열띤 반응을 얻었다.

이는 모든 사람의 공통된 삶의 지향이라 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갈망의 연장선이 아닐까? 누구도 거부하지 않

는 산사의 열린 문. 이는 템플스테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문화 아이템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고유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템플스테이도 '행복 씨앗 가꾸기'라는 시즌2의 철학을 재정의(올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던 해)했다. 그 치열한 노력의 산물로, 템플스테이가 주는 웃음과 감동, 울음과 공감을 자아내는 산사여행에 많은 이들이 가까이 동참하고 있다.

1,700년 동안 유지 전승되어왔던 살아 있는 문화는 템플스테이의 또 다른 동력이다. 문화는 언제나 그 시대를 상징하고 움직이는 힘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문화는 한 나라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현재의 문화는 미래를 불러오는 근간이 된다. 문화재를 다루고 지키는 손길에 따라 그 국가의 선진성을 가늠할 수 있다고 했다. 지키는 것 못지않게 문화를 향유하는 일도 중요하다.

모든 생명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지켜온 산사에서, 그 안의 건축양식과 문화, 생활양식 곳곳에 담긴 아름다운 공생의 가치를 누려보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용 연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칠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공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지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경기도 화성시 떡고고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자비실천불교연합회>